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청년농과 소통

✎ 이형동 기자 | ㉠ 승인 2024.01.31 17:25

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



▲ 성주군 청년농업인과 성주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등이 청년농 대상 농지지원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.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청년농 농지지원사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간담회는 성주군 청년농업인과 성주군 및 공사 담당자 등 10명이 참석해 청년농 대상 농지지원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, 청년농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정책 제안 등을 수렴하고,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.

이돈문 지사장은 "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"라며 "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

